

왕따 당하고 있는 여중학생의 가족치료

박 태 영(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부교수) / 조 성 희(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

I. 서론

본 연구는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13세)이 학교와 교회에서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여 있는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상담 사례의 아버(46세)와 어머니(40세)는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동생(10세)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클라이언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을 때,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지를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야단쳤다. 또한 아버지는 항상 교회생활에 바빠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첫째 딸인 클라이언트가 태어났을 때, 부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고, 클라이언트 양육문제로 시어머니와 갈등관계를 겪었다. 또한 부인은 클라이언트가 남편을 닮아서 마음에 안 들어 했다. 근본적으로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였고, 남편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으며, 자녀양육 문제에서 매번 충돌하였다. 반면에 어머니는 클라이언트를 늘 동생과 비교하였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둘째 딸을 좋아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미워했다. 클라이언트는 집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없었으며, 특히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 클라이언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꼭 잠그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로 악을 쓰는 행동을 반복하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족치료상담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녀의 왕따와 관련된 요인들과 왕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심화시키는 가족들의 대응방식, 상담을 받은 후 클라이언트가 왕따를 벗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제점 및 치료목표

1. 문제점

첫째, 클라이언트는 친구들이 자신을 왕따시켜서 학교에 가기 싫어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원한다.

둘째, 아빠가 무섭고 대화가 안 된다.

셋째, 엄마가 클라이언트를 여동생과 늘 비교하였고, 클라이언트가 4세 때부터 때리기 시작하였으며, 엄마가 클라이언트에게 항상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넷째, 남편에게 있어서 부인은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부인이 화가 나면 완전히 남과 같은 존재가 된다.

다섯째, 부인은 남편이 착하지만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남편을 닮아 싫어한다.

여섯째, 남편은 지금까지 가족보다는 교회중심으로 생활을 한다.

2. 치료목표

첫째, 클라이언트와 엄마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엄마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둘째, 클라이언트와 아빠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의사소통 증진 및 신체적인 접촉 시도

셋째, 클라이언트와 여동생의 관계 개선

넷째, 부부간의 의사소통 향상

다섯째, 아빠의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

III. 연구방법 및 분석

1.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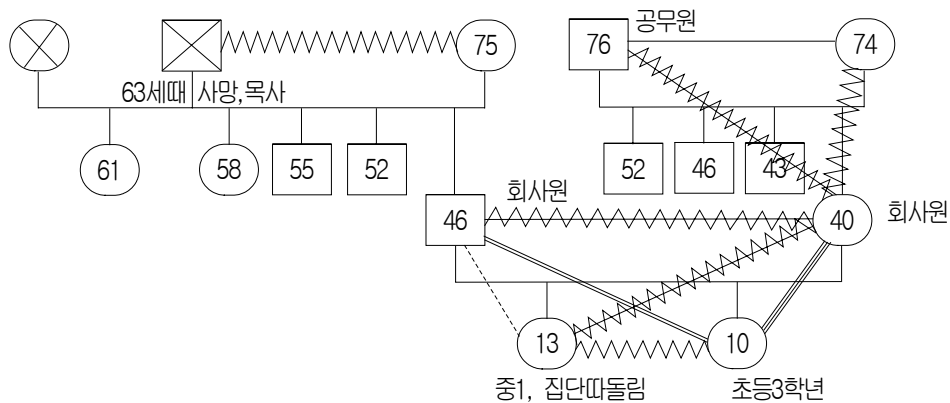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족치료상담 사례의 경우는 2002년 5월 4일부터 2002년 10월 26일

까지 총 11회 동안 상담이 진행되었다. 1회 상담은 클라이언트와 부모상담, 2회는 아빠상담, 3회와 4회는 엄마상담, 5회는 클라이언트상담, 6회는 클라이언트와 엄마상담, 7회는 클라이언트와 아빠상담, 8회부터 10회까지는 부부상담, 마지막 11회에는 클라이언트와 부모 및 여동생을 포함한 전체가족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치료상담에 나타나고 있는 왕따와 관련된 요인들, 왕따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심화시키는 가족들의 대응방식, 상담을 통해 변화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상담 사례의 축어록 중심으로 상담 과정에서 기록된 메모 등을 포함하는 자료들을 원자료로 하여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원자료 상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범주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와 연구자간의 비교 등의 삼각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IV. 상담내용에 대한 분석



<그림 1> 가계도

1. 왕따와 관련된 요인들

가족치료상담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왕따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은 생활

태도가 지저분한 점(“애가 아파서 학교를 가지 않았던 날 선생님이 갑자기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지저분한 것을 애 책상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애가 없는데도 야단을 쳤던 모양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아파서 앓고 해서 먹은 것을 복도에 토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야단을 쳐서, 토한 것을 자기가 치웠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재는 더럽다’라고 하면서 일이 벌어졌어요.”)과 친구들과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부딪치는 방식의 의사소통(“그런데 ○○라는 애하고 계속 부딪치더라고요. ○○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서 그 애 엄마도 괜찮고 애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지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오더니 자기 전학시켜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왕따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은 부부간의 갈등(“당신이 어떻게 잘못을 했으니가 어떻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공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제가 감을 잡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나하고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 놓아도 서로 답이 맞지 않아요. 안 풀리는 거예요.”), 자매간의 차별(“일부러 언니 들으라고 언니한테 준 차비 내가 가지라고 동생에게 했는데 안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내가 언니한테 미안한 것이 없지만, 너한테는 너무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말이 상처가 될 줄 알았지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왕따(“애들한테 놀지 말라고 하고, 욕을 듣게끔 크게 얘기 하구요.”, “게임을 하는데 인원이 35명이어서 짝을 짓게 되면 1명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본인이라고 하면서 집으로 전화를 해서 전학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를 당하게 되었으며, 학교생활이 힘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전학을 요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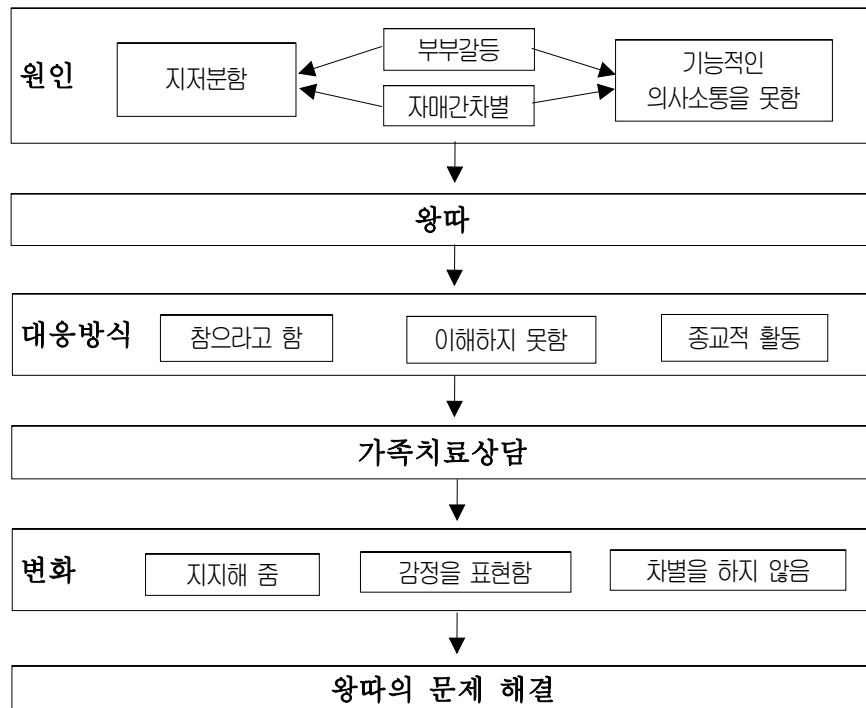
2. 왕따에 대한 가족들의 대응방식

자녀의 왕따에 대한 가족들의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왕따 시킨 아이가 누구인지 밝혀지니까 그 애와 그 애 부모님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한테 ‘이제 그 애가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할 것이다. 그 애가 왕따를 당하면 네가 왕따를 당하는 심정을 좀 이해를 해줘라. 저 부모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라고 했어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에게 친구들과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참으라는 메시지(“‘괜찮다, 꺾어봐라, 지금 학교를 옮기고, 만약에 그 학교에서 소문이 나면 못 견뎌내지 않겠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열 번을 잘해도 한번 못하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지 한번 지켜보자고 했어요.”)를 줌으로써 자녀가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활동(“이제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가서 안고 기도를 하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상담을 통해 변화된 왕따와 관련된 요인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왕따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가족치료상담을 통해서 왕따와 관련되어 있던 요인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왕따를 당한 자녀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이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서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변화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자 역할(“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그 당시에는 내가 네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와서 우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저에게 네 뒤에서 엄마 아빠가 밀어줄 거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라고 하시고, 제가 얘기를 하면 엄마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되겠냐고 하세요.”)을 수행하며, 자녀를 지지해 주게 되었다. 또한 자녀도 이전에 표현하지 않고 부딪치는 방식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여기 오면서 애가 조금씩 대화를 할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니까...”)하게 되었다. 또한 엄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변화하면서 자녀간의 차별의 문제도 완화(“많이 도와주시구요. 동생보다 더 잘해주시고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자녀의 왕따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뒤에서 이야기하는 애는 있기는 한데, 이제는 신경 안 쓰고 넘길 수 있어요. 오늘도 애들이 쪽지 보내는 것 보니까 내 이름이 보이면서 싸가지 없다고 쓰여 있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친구들과 학교생활 어떠냐고 물었더니 잘 지내고 재미있네요. 자기는 이제 학교생활에는 문제가 없네요. 이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왕따와 관련된 요인들에서부터 왕따의 문제, 왕따 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족들의 대응방식, 상담을 통한 변화 및 왕따 문제의 해결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왕따의 관련 요인과 대응방식 및 변화

V. 결론

본 연구는 자녀의 왕따 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상담에 나타나고 있는 왕따와 관련된 요인, 왕따에 대한 대응방식, 상담을 통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왕따와 관련하여 부모의 갈등과 자녀간의 차별로 인해 자녀의 생활태도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 기능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기능적이지 못한 모습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또래집단과의 갈등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또래집단에서의 갈등을 가진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참으라는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분노와 감정의 해소를 막음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증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가족치료상담을 통한 가족간의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자녀의 지지체계로서의 부모 역할을 통해 자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왕따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